

1 개요

초공본풀이는 무조신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조지멩왕아기씨는 황금산 중의 주술로 잉태하는 바람에 집에서 쫓겨나 남편을 찾았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홀로 삼멩두를 낳아 길렀다. 성장한 삼멩두가 과거급제를 하자 선비들이 시기하여 조지멩왕아기씨를 가두는 바람에 삼멩두는 원수를 갚기 위하여 굿법을 마련하여 어머니를 구하고, 다시 유씨부인을 심방으로 만들어 무업이 이어지게 하였다.

2 내용

임정국 대감은 부자로 살았으나 50세 가깝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하였다. 마침 황금산 절의 중으로부터 불공을 드리면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불공을 드렸으나 정성이 모자라 딸을 얻었다. 딸의 이름을 조지멩왕아기씨라 짓고 고이 길렀다.

조지멩왕아기씨가 15세에 이르렀을 때 임정국 부부는 옥황에 벼슬살이하러 가게 되었다. 부부는 딸을 방에 가두고 자물쇠로 잠가 하녀에게 구멍으로 음식을 주면서 보살피게 하였다. 황금산 절의 중들이 조지멩왕아기씨에게 가서 임신을 시키고 오자는 내기를 하였다. 이때 주자선생이 먼저 나서서 시주를 핑계로 접근하여 잠긴 문을 요령으로 열고 조지멩왕아기씨가 시주를 내주는 틈에 머리를 세 번 쓸어 임신을 시켰다.

조지멩왕아기씨는 하녀로 하여금 증거물로 주자선생의 고깔과 장삼 귀통이를 끊어 놓으라고 하였다. 조지멩왕아기씨가 임신하게 되자 하녀는 임정국 대감에게 연락을 하였다. 임정국 대감이 돌아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하다가 내쫓았다.

조지멩왕아기씨는 집을 나와 황금산 절로 주자선생을 찾아가 만났다. 주자선생은 찰벼 두 동이를 내주며 찻질을 까라는 과업을 내주는데, 새들이 날아와 대신 까주었다. 주자선생은 중은 살림을 할 수 없다며 불도 땅으로 가라고 하였다. 조지멩왕아기씨는 하는 수 없이 물러나 아기를 낳았다. 9월 8일에 오른쪽 겨드랑이로 본멩두, 18일에 왼쪽 겨드랑이로 신멩두, 28일에 명치로 살아살축 삼멩두를 낳았다.

삼형제는 자라 서당에서 심부름을 하면서도 재에 글을 쓰며 열심히 공부하였다. 삼천선비가 과거보러 갈 때 따라나섰으나 배 3천 개를 따내면 동행하겠다는 선비들의 잔꾀에 속아 배좌수의 배나무에서 꿈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배좌수는 용이 배나무에 감겨 있는 꿈을 꾸고 삼형제를 도와주었다. 삼형제가 서울에 도착하였으나 시험장의 문이 닫혀 있어 하는 수 없이 답안을 쓴 종이로 돌멩이를 싸서 던져 넣어 급제하였다. 그러나 삼천선비가 시기하여 중의 자식임을 밝히는 바람에 과거가 취소되고 말았다. 이에 삼형제는 다시 활쏘기로 능력을 보여 과거에 급제하였다.

삼형제가 유가하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삼천선비는 족지멩왕아기씨를 감금하고 하녀를 꼬여 어머니가 죽었다고 알리게 하였다. 삼형제는 낙담하여 벼슬도 포기하고 유가 행렬을 모두 돌려보낸 뒤에 외할아버지인 임정국 대감을 찾아갔다. 임정국 대감은 어머니를 구하려면 심방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삼형제는 너사메너도령 3형제를 의형제로 삼고 무악기를 마련하여 굿을 하여 어머니를 구해내고 신전집을 마련하여 어머니를 살게 하였다.

삼형제는 대장장이를 불러 무구를 만들고, 신칼로 삼천선비를 죽여 복수한 다음 삼시왕이 되었다. 한편 유씨부인은 6세에 주은 엽전 탓에 병이 들어 매 7세가 될 때마다 크게 아파 죽을 고비를 겪었다. 유씨부인은 77세 되던 해에 족부장자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자 굿을 하여 살려냄으로써 최초의 심방이 되었다.

③ 특징

안사인 심방의 구연본이다. 안사인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초대 기능 보유자이다.

초공본풀이는 무조신(巫祖神)의 신화이다. 다른 지방의 당금애기, 제석본풀이와 같은 계통의 이야기이다. 다만 초공본풀이는 이들 이야기에 유씨부인의 내력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씨부인의 내력을 추가하는 한편, 무구를 갖추는 과정을 구체화하고, 신들의 관계를 알맞게 설정함으로써 무조신화에 합당한 내용을 마련하였다.

④ 핵심어

임정국, 황금산, 불공, 족지멩왕아기씨, 절, 주자선생, 삼형제, 삼멩두, 삼천선비, 과거, 활쏘기, 너사메너도령, 유씨부인, 심방, 옥황

⑤ 원전 서지사항

초공본풀이(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⑥ 관련 자료